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 5:33-37)

Do Not Swear An Oath At All! (Matt.5:33-37)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맹세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 혹은 맹세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e cannot help to do such things like swearing oaths while living our life in this world. However, Jesus tells us that we must not swear an oath at all. Through this text, what does He teach us concerning a promise or oath?

1.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제 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 Must keep what you have sworn as an oath!

If you swear an oath and do not keep it, you will keep a false oath. Moreover, if the oath that you have sworn in God's name is a false oath, that will bring disgrace upon the name of God.

The third commandment is,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Not to tak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means "Do not swear an oath upon the nam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he oath that the people had sworn put full confidence upon the name of God,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Lord.

2. 맹세하는 것을 조심하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맹세를 너무 많이 남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맹세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결국에는 맹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34-36).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의 안일한 도피를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 Be careful of what you swear as an oath!

At the time of Jesus Christ, the Pharisees and tax collectors abused their making of an oath too much. It was simply customary for them to swear an oath. Whenever they swore an oath, they always mentioned God's name. Finally, because of their oath they brought disgrace upon the name of God, and God's glory was left in the shadow. That's why Jesus emphasized strongly to not swear an oath at all: by heaven, or by the earth, or by your head (vv. 34-36). And He told us to not swear an oath at all. If you make a false oath, you should rather not make one at all. Don't abuse God's name for your own means.

3.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거기에서 보태고 빼는 것은 벌써 그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악에서 좇아 난 것이다’ (37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하여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과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나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믿을만한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값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3. Answer 'yes' or 'no'

Jesus explained, when God's children reply, all you need to say is simply, 'yes' or 'no'. If you add and delete something to that, the basis has already gone wrong, and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37).

Since Jesus' teaching that is given to us here is clear, He said that we must live our life with a transparent personality and honesty without hiding behind oaths. In other words, if I say yes or no, in order that the other person can rely on what I say, I should be a reliable and honest person.

Pastor Max Rukeido makes us think many things in the following passage, "We want to have a good feeling towards our boss. So, we flatter him. We call it 'lubricant'. But God calls it a lie. We want to be praised by people. That's why we exaggerate our story. We say that's for 'a dramatic effect'. But God speaks of it as 'a lie'. We want to be respected by people. That's why we owe to someone debts that we cannot manage to pay off and we live in an undeserved house. We say that's 'success.'

But God says that it is a false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 지킬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할 때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If we swear an oath with God's name, we must keep it as long as we give our liv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we say yes or no, we must be a reliable and honest Christian for other people to rely on. Therefore, by giving glory to God, and being able to fulfill the role of being the light and salt in a dark and corrupted worl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precious people of the Lord.

2012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4시 본당/수여식: 찬양예배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이영기 장로)가 선발한 2012년 상반기 장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201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학생>-4명 허승일 박다형 최인에 이신우
- <대학생>-21명 김현지 진영재 Prativa Bandahki 박하나 김재은 김수경 유원모 임아름 지효환 이한나 김휘 권보화 김혜진 이윤재 3 최서원 박수영 이신혜 은다솔 박유란 손형호 권소현
- <디아스포라>-9명 이현서 이영화 김영애 이수현 양진혁 양리인 박준희 홍정민 백요셉
- <브리스길라>-3명 이지수 왕수용 이윤희
- <교역자 선교사 자녀>-7명 한세희 정희준 황신혜 서윤영 김에나 이혜나 김하은
- <송암장학생>-3명 최미리 노성준 문병훈
- <기타> 이성화

담임목사 초청 등록새가족 환영모임 시작

2부 예배 후 - 802호실에서

새가족부(부장: 하인선 장로)는 올해부터 202호실에서 등록카드를 제출한 후 정해진 4주간의 필수양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정식으로 서울교회 교인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을 담임목사가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환영모임을 매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실에서 갖게 되는데 지난 주일 위 필수과정을 마친 14명의 새가족이 초청되어 오늘 그 첫 모임을 갖게 된다. 환영모임에는 교

구목사와 교구장은 물론 소속 다락방장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새가족이 자연스럽게 교구와 다락방모임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새가족들이 다락방을 통하여 하루속히 서울교회의 진정한 한가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우물파기 및 교회건축을 위한 선교지 탐방

선교위원회(위원장 신용식 장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로 우물 파기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내일(2월 6일) 출국한다. 이번 방문단에는 박노철 목사와 오정수, 노문환, 서문석, 이갑진, 신용식 장로가 동행하며, 박노철 목사와 오정수 장로는 10일, 다른 방문단은 1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2곳과 캄보디아 2곳에 현지인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었으며 이번에 미얀마 2곳, 방글라데시 12곳, 아프리카 2곳에 우물을 파 줄 계획이고 캄보디아는 교회건축을 계획중이다. 우물 파기 사역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를 부탁 드린다.

서울교회 모바일 웹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

스마트 폰, 테블릿 PC 등 모바일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모바일 브라우저 연동



- ① QR코드 리더 앱을 설치합니다.
- ② 스마트 폰으로 순례자나 주보에 게재된 QR코드를 찍습니다.



③ 자동으로 교회 모바일 웹이 열립니다.

모바일 웹 접속 어렵지 않아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을 위해 서울교회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교회 모바일 웹 서비스는 교회 홈페이지를 모바일 단말기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모바

일 단말기에서 순례자와 주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mseoulchurch.or.kr 주소를 입력하거나 즐겨찾기 추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교회를 만날 수 있으며, 박노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모바일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의 연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6]

(문 32)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의 패물을 탈취하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출3:22)

(답) : 우선 출3:22 말씀의 번역부터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빌려...'(KJV) 여기서 빌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하다 요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의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사용한 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계획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구하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출3:22말씀은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줄 기회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인들 자신도 그들에게 빌려주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그들의 노예에게 그 같은 귀금속품을 선물로 기증할 의향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모세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열 가지 재앙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의 재앙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못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출12:33)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께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출12:35-36)라고 했습니다.

36절의 '취하였다'는 말은 즉 위협에서 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더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야겠기에 원하는 선물을 주어 하루속히 보내려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인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예로 착취당한 히브리인으로서 탈취했다기 보다 마땅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제8기 설교사역도고 교육 개강

교육은 2월 5일(주일)~ 2월 26일(주일), 4주간, 매 주일 오후 3:30~4:20이며 609호에서 정수길 목사를 강사로, 강의내용은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과 도고의 실제 등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시다.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는 총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통일을 준비하는 장로교회가 되기 위한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월 31일(화), 소속 목사·장로 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교회에서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뜨겁게 회개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8~19)란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윤희구 한장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지난 100년이 성장과 분열의 시대였다면 이제 성숙과 하나 됨의 시대가 되어야한다”며 “교회의

하나 됨과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교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강조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엡 4:1~6)이란 제하의 설교에서 “우리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장로교 아래 개별교단의 특성을 인정하는 한 교단 다 체제”를 이뤄나가지”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한국교회의 원죄인 분열이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며 속히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자”고 했다. 한장총은 이날 기도회를 시



“한국교회의 원죄인 분열이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작으로 올해 다양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기념 학술대회, 사진전, 장신대 합창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1일 ‘한국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연합대회’를 열면서 장로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성, 교육과 선교에 기여한 바가 큰 300교회를 분야별로 모델 교회로 선정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도고팀 소개-카자흐스탄

복음의 돌파구가 활짝 열리길

카자흐스탄 선교 도고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최장수 기도부대로, 매 주일 오후 3시 30분, 901호에서 모임을 갖는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팀원이 많고 8년동안 꾸준히 기도모임에 참여한 이들이 적지 않아 10여 명의 도고팀은 가족처럼 똘똘 뭉쳐있다. 도고팀장 위성남 권사는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 현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순 없지만 선교위원회를 통해 기도제목을 받아 카작인들 안에 복음의 돌파구가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에 북부에 자리잡은 카자흐스탄은 인구의 7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이며, 개신교는 2%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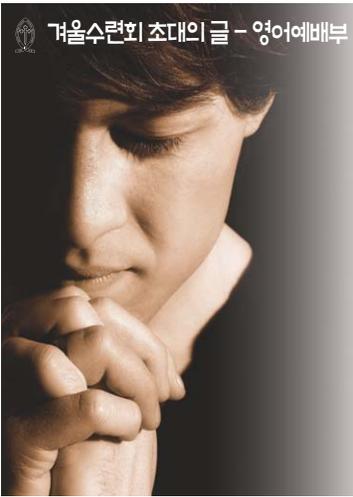
채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영적 황무지이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심하여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이은준 강혜정, 양재성 이현주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다. 현재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는 실크로드선상에 있는 도시, 타라즈를 중심으로 근역의 소외된 오지들로 사역의 경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2007년 11월에 미르교회를 개척하여 청년들에게 제자훈련 교육을 통해 무슬림 권에서의 선교의 고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양재성 이현주 선교사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웃웃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 도고팀은 비자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뿌리깊은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전파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사역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신 미르교회(이은준, 강혜정)와 웃웃교회(양재성 이현주)가 견고하게 서가며 부흥 성장하여 카작 복음화와 중앙아시아의 선교센터가 되도록
- 카작인 안에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시길
- 선교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이하나, 헤나, 평화와 (양수빈, 민석)에게도 모든 부분에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길
- 미르교회에서 20개 마을교회 개척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 고아원 설립을 통해 120여 종족들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 선교사들의 비자를 해결해 주시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도 허락하여 주시길
- 전통과 문화, 미풍양속이란 미명 아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어 진정한 예배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성장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나소정 집사, 최진경 성도(편집부)



겨울수련회 초대인 글 - 영어예배부

PRAISE PRAY PLAY

임흥수 집사(영어예배부 부장)

매 주일 아침 11시 20분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어예배는 2001년 이종운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만민에게 전도라는 교회 목표와 세계 복음화라는 교회 비전에 발맞추어 비록 언어, 인종 또한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성도들 또한 자녀들이 겪는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세계 선교를 꿈꾸는 미래의 선교사의 훈련 기관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 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 순서의 도입,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현재 90여명이 참석하는 주일 예배의 참석 인원이 150명 되기를 1차 목표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이신 스티븐 마티노리치 목사님을 담당 교역자로 모시고 있는 영어예배부는 "PRAISE (찬양), PRAY (기도) 그리고 PLAY (친교)" 즉 PPP를 주제로 2월 23일과 24일 양 일간의 겨울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수련회는 영어로 WINTER RETREAT로 표현합니다. RETREAT 즉 일상 생활 중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묵상 또는 피난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가페타운의 자연 속에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 아울러 재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ELCOME EVERYBODY TO OUR WINTER RETREAT!!!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해 작성된 교회 각 부서들의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습니다. 당회 산하기관과 각 위원회, 교구, 남녀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등 모든 부서의 서기나 기록 담당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각종 기록물(각종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1월 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아울러 2010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들어오셔서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의 이름, 담당자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해주시는 자료는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호산나 찬양대가 제출한 자료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이희민(이정실,이지은) 박광수 정철웅(오선혜) 김정수(김대수) 박찬성(심명숙) 이우성 박홍래(우미란) 김윤숙 오치열 정기자 박윤혜 임경탁(김혜중) 사라여전도회 김이세(임송자) 구은총 루디아 여전도회 유현주(이은미) 이사라선교기도팀 손성실외7명 윤석원(현승희) 백훈(김명심) 김재현 에스더전도회 한나전도회 리브가전도회 전은주 전봉길(임선영) 전은재 김정곤(김수정) 오정수 백정숙 김성은(김성경,김요한) 유관모 신영신 황난옥 강택곤(정유선) 윤택욱 김승록(전미경)마리아여전도회 권수정 모세선교회 도르가여전도회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오치열 김이세(임송자) 윤석원(현승희) 김응기 라승현 유문건(김안성) 김은태(전하미) 차도훈(남태영) 노제현 김정곤(김수정) 홍준기 최양진(강윤숙) 황난옥 박찬성(심명숙) 염혜영 김만윤(장호립) 민경철(추현숙) 이강인(허숙) (다음 주 계속)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나눔의 집에서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 물품을 기다립니다. 제 1권사회(회장 남태순 권사)가 관리하는 나눔의 집은 지난해에도 수익금 팔백여 만원 전액을 아가페타운 건축 헌금으로 드린 바 있다. 농촌 목회자들의 쇼핑 명소로도 이름난 나눔의 집은 이제 곧 시작할 41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지하 3층에 있는 매장을 재정리 하며 성도님들이 그 곳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개설 되는 나눔의 집은 일반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11일(토)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월례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는 캄보디아 미얀마 기독교인 제자훈련 주강사로 출국한다. (2/6-18)
- 임용 : 1교구 오병호 집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조교수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2.5) 안드레선교회(2.12)
- 금주의 식사 : 한중우집사 황노전 권사 가정 (저녁결혼 감사하며)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6(주)~28(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20(월)~21(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사랑부	2.12(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청년1부	2.29(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목)~3.3(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에바디부	2.25(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1(토)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2.24(금)~25(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노리치 목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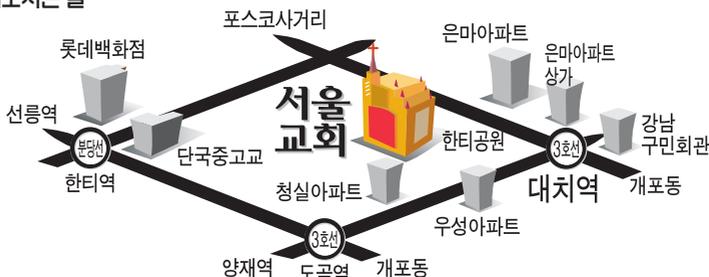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장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 받아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2.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로 선교탐방을 떠나시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3. 한국장로교회가 환교단 다체제를 이루어 사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4. 신혼가정부, 사랑부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